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현명한 령도

한 승 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합니다.》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는것은 우리 청년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오늘 청년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힘을 아낌없이 바쳐온 영웅적인 투쟁전통을 이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로 내세워주시였기에 우리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신것이다.

오늘의 대고조는 곧 정신력의 대고조이며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우리 인민, 청년들의 무한대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청년들속에

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이야말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우는 생명수이며 우리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사상적기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7(2008)년 9월 5일 고전적으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려 청년들의 심장속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필연이며 우리 조국은 진정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가 제일이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으며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용약 달려나가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게 되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시며 우리에게는 금이 수백t 있는것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

튼튼히 무장한 젊은 청년대오를 가지고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우리의 기본재산은 금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정력적인 강행군현지지도로 우리 청년들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의 땅 강선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때로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주시며 청년들을 강성국가건설대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흥남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과업을 주시고 대상설비생산을 위하여 한달음에 천리길을 달리시며 락원을 찾아주신것을 비롯하여 하루에만도 여러 단위들을 쉬임없이 지도하시면서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룩한 투쟁공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낮이나 밤이나 순간의 휴식도 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걸음걸음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대고조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빛내이며 어떤 정신과 각오로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를 비상이 높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 강행군현지지도에 의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전위의 대부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

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신것이다.

전투적기백과 정열에 넘친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기적과 위훈을 떨쳐야 온 나라가 들끓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청년들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까지 희천발전소를 일떠세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희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98(2009)년 3월과 주체99(2010)년 1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30°C 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을 짧은 기간에만년대계로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건설한 대형물길굴에도 들어가시여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과 전국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을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1년나마 걸리고 장마철에는 할수 없었던 가배수로형성을 3개월만에 끝내였으며 몇년이 걸려야 한하던 언제기초공사를 단 5개월사이에 끝내고 언제쌓기에 들어감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청년들이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처럼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6월에 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말씀들에서 청년들은 시대가 요구하고 당이 바란다면 천만산악도 떠옮길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경제건설의 중요한 전선들에 적극 진출하여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청년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처럼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용약 달려나가 선군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쳤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청년건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에 간직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서해갑문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인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대계도간석지청년건설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청년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기쁨을 드릴 념원을 안고 신심과 활력에 넘쳐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되였으며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펼쳐나가게 되

였다.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최첨단돌파전의 기수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이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밀착시켜야 하고 발전적인 목표를 어떤 높이에서 대담하게 세워야 하며 기계설비, 생산공정의 현대화는 어떤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현대화실현에서 앞장섬으로써 집단이 자랑하는 청년혁신자가 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증시로선을 받들고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과학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

리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우주기술과 핵기술, 기계제작기술을 비롯한 수많은 최첨단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청년과학자들은 우리 식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신념과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새로운 형의 CNC조종체계를 완성해냄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인민이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

며 위대한 당,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은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모든 청년들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